



리우의 화려한 불꽃 2016 리우 올림픽 개막을 이틀 앞둔 3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개막식 리허설 중 불꽃놀이로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리우 올림픽 내일 개막

16일간 열전...한국 금 10개·4개 대회 연속 10위 목표



▶관련기사 18·19·20면

4년간의 땀, 열정을 쏟아낸 16일간 감동의 드라마가 시작된다.

제 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이 6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8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주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남미 대륙에서 열리는 최초의 올림픽으로, 세계 207개 나라에서 1만 900여 명의 선수가 22일까지 16일간 28개 종목에서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 경쟁을 펼친다. 대회 공식 슬로건은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뉴 월드'(New World)다.

한국은 24개 종목에 선수 204명을 파견, 종합 메달 순위 10위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메달 10개 이상을 거둬들이겠다는 각오로, 베이징(2008년·금메달 13개·7위)·런던(2012년·금메달 13개·5위) 올림픽에 이어 3회 연속 '10-10' 달성을 노린다. 메달 순위로만 보면 아테네(2004년·

금메달 9개·9위)까지 포함해 하계올림픽 4개 대회 연속 10위 달성을 목표로 했다.

광주·전남 지자체가 키운 선수들 33명도 '금빛 레이스'를 펼친다. 특히 양궁의 기보배(28·광주시청), 최미선(20·광주여대), 유도 김성연(25·광주도시철도공사), 배드민턴의 이용대(28·삼성전기)는 한국 선수단의 10위 달성의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한국 육상 최초로 멀리뛰기에서 메달을 노리는 김덕현(31·광주시청)과 100m 한국 신기록 달성에 도전하는 김국영(26·광주시청)의 레이스는 놓치면 후회할 경기다.

한국 선수단은 개회식에서 포르투갈 알파벳 순서에 따라 207개 참가국 가운데 52번째로 입장한다.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기수는 펜싱 국가대표 구본길(27·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았다. 국가별로는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관례에 따라 가장 먼저 입장하고 북한은 156번째로 들어온다. 개최국 브라질은 맨 마지막인 207번째다. 성화 최종 주자는 축구영웅인 펠레(75)가 거론되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 첫 관문 넘었다

국방부 현지실사 평가 '적정' 판정... "후속 절차 진행"

재원 확보 높은 점수...尹시장 "대구와 같은 지원해야"

광주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군(軍) 공항 이전 사업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여부 타당성 평가에서 '적정' 결과가 나오면서 향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3년 4개월,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2013년 10월)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뒤 2년 10개월 만이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이전 부지 선정과 시기, 수 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국방부는 4일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 현지조사 결과 '적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국방부 민간 평가위원들은 3~4일 이틀간 광주 군 공항을 둘러본 뒤 광주시의 이전건 의서 설명, 분과별 토의와 종합 평가회의 등을 거쳐 최종 점수를 매겼다.

타당성 평가는 1000점 만점에 800점을 넘어야 '적정'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평가에서 800점을 훨씬 웃돈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군 공항은 지난해 평가에서 860점을 받아 적격사업으로 평가됐다.

평가항목은 현 공항부지 활용방안(600점), 새로운 군 공항 이전방안(200점), 이전할 주변 지역 지원방안(200점)이었다.

평가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이전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건의서가 작성돼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평가위는 광주공항이 도심 역세권에 위치하고 영산강·황룡강 등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개발할 경우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의 '적정' 평가는 정부가 군 공항 이전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고, 이전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가능하게 돼 이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현지평가 등을 토대로 이달 내 최종 결과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방부의 공식 통보가 있기 전 까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추진, 전문가 초청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광주형 이전사업 모델 마련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장현 시장은 "군 공항 이전의 첫 단추를 끼운 만큼 국방부, 전남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이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대구공항 이전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시장은 "타당성 평가 통과 시 시민의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민친화적 개발을 통해 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국민의당 "광주형 일자리 적극 챙길 것"

광주시·전남도·시도교육청과 예산·정책협의회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 제1당이 된 국민의당이 4일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과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현안사업 해결에 적극 공조키로 했다. 참석 의원들은 "지난 4월 '총선 압승'은 선물이자 숙제"라며 "지역 현안 사업을 상시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서 각각 열린 협의회에는 김동철 예산결산특위 간사, 장병완·김광수·김종희·이용주·윤영일 등 예결위원 6명과 김성식 정책위의장, 주승용·박준영·정인화·송기석 의원, 윤장현 시장, 장휘국 사교육감,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예결위원인 장병완 의원 등 참석 의원들은 올해 예산 편성이 예년에 비해 빠른 만큼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시 간이 1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며 각 상임위에서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기석(광주 서구갑)·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국회의원들은 예산에 살고, 예산에 죽는 '예산예사'의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예산 요청을 할 때는 무작정 예산만 쟁겨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명분과 정당성, 논리성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일 열린 더민주와의 정책협의회에서도 부상했던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장 의원은 "친환경차 선도도시"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기사화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광주형 일자리였다"라며 "어려운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광주가 성숙한 시민정신을 통한 민주화에 이어 사회적 타협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상의 모든 빛을 압도하는
눈부신 자신감
헤라 UV 미스트 쿠션

언제 어디서나 찬란한 빛을 보여주세요
새로운 울트라 미립 분산 기술이
한 번의 터치로 피부를 밀착시켜
들뜸없이 완벽하게, 더 촉촉하고 섬세하게-
건강한 윤기분홍 피부를 선사합니다

HERA

HERA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자 요금부담) www.hera.co.kr